

법회안내

한타스님(담양 정토사 주지) 26일 오전10시 동산교육회관 전국영불만일회 정토법회. 매일 내제 목요일 오후7시 무량회법회. 매주 금·일요일 오전10시 30분 일산 문사수법회. (02)732-1206

각현스님(연꽃마을 이사장) 29일 오후1시 화계사 불교중앙대학 특별초청법회. (02)902-2663

원옥스님(호안사 주지) 매일 음력 1일~3일 오전10시 30분 초하루법회. 매일 음력 8일 오전10시 30분 약사재일법회. 매일 음력 18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금강선관루. (02)802-4779

세운스님(유성광수사) 매일 3일 오전11시 신도정기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8시20분 청년법회. 매주 토요일 밤11시 토요일법회. 매일 음력 1일 오전11시 초하루법회. 매일 음력 15일 오전11시 보름법회. (042)823-0332

호당주교(진각종 실상심인당) 매일 첫째주 월요일~일요일 오전10시 월초불공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자성학교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청년회법회. (02)862-3624

원기법사 23일, 30일 부산불교교육원 7월 초창법회 예배대참회론 강의. (051)466-4080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불교사회화의 길 찾아서 대한불교법사회 하계수련

대한불교법사회는 24일~26일 2박3일간 강원도 평창군에서 '세계불교운동5-불교의 사회화'라는 주제로 하계수련대회를 진행한다.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깨달음의 가르침을 향해 나아가고자 마련된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불교의 사회화에 대한 목적배교수(동국대)의 강의와 불모신앙에 대한 김성호법사의 강의, 그리고 참가자들의 열린 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02)264-1827

법사상으로 경제난 극복 생활불교회 대발심법회

대한생활불교회는 청정운동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의 대발심, 정진법회를 25일~28일 칠성산 법암사와 금강산 일대에서 펼친다. 이번 수련기간동안에는 월정사 상원사 등명낙가사 낙산사 등에서 산사의 특색 있는 법회를 온 몸으로 체득하고, 선 사상과 인류구원에 대한 스님들의 강의와 염불과 기도도 난국을 헤쳐나갔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042)531-9542

108참회로 자생불 보자 불교신행연 문화답사기행

불교신행연구원은 26일 오전 7시 청주 보살사·동화사·안심사로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청주 보살사는 유서깊은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커다란 관석에 두 불상을 나란히 새긴 일광이불상, 지장보살상, 극락회상도, 영산회상도, 오층석탑 등

"사랑과 봉사의 마음 느껴보세요"

광명보육원 사랑나눔캠프...도에·등산 등 다채

서로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주고 넘치는 부분은 나눠가며 마음의 정을 느껴보자. 광명보육원생 20명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는 '사랑나눔캠프'가 8월 10일~13일 3박4일간 광명보육원에서 열린다.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20명이 각각 한명의 보육원생과 결연을 맺어 후원금 지원 외에 보육원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아카데미(공동대표

이근후, 이동원)와 무하문화사랑방이 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시인, 화가, 도예가, 산악인 등이 강사로 참가해 봉사하는 마음, 시이야기, 글쓰기는 이렇게, 문화이야기, 산악비디오 감상, 그림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북한산 등반, 자연보호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며 아낌없는 보살행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2)760-5138

유적보고 미술강의 듣고 광주교육원 사적답사

제도교육, 성적위주의 교육에 쫓겨난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 우리것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건강한 정서순화와 아름답고 폭넓은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광주주목교육원에서 마련했다. 8월 9일 화순 운주사-고인돌공원-김영만목판화연구소로 떠나는 이번 행사는 유

게시판

사회교육원은 24일 '여름철 향기로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 특강을 실시한다. 수강료 5만원. (053)784-3669

모집

△금식지원봉사자=두송종합복지관은 월 1회 반찬만들기, 배식, 설거지 등의 활동을 할 무료 급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서류 전산입력·방과후 아동공부방 지원봉사자=구로종합

적답사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미술지도도 함께 진행된다. 또 8월 10일에는 광주불교교육원 강의실에서 관화만들기 작업도 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어린이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062)228-9098

불법의 바다서 지혜찾자 불교중앙대 수강생 모집

점점 절정으로 치달는 무더위 속에 육체도 정신도 지쳐 있는 요즘, 여름은 길지 않으니 열심히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다름아닌 불교중앙대학의 불교강좌, 발심서원을 다시 세우며 탐방을 속에 영그는 불심을 일깨워보자.

불교중앙대학

Table with 3 columns: 교양대학, 개강일, 연락처. Lists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

답사

△진도를 찾아서=터사라는 쌍계사-운림산방-남도석성-웅장산성-벽파진으로 이어지는 민속의 보고 진도를 찾아서 답사기행은 25일 떠난다. 안내는 역사탐방연구회 염상균씨가 맡는다. (02)725-1284

△명찰순례=선정산수회는 25일 속리산 법주사(동암)로 명산대할 순례를 간다. (02)3143-1303

나의 수행일기



〈남원 제일극장 대표〉

불교와 인연 맺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요즘에야 쉽고 재미있는 불교해설서도 많이 나와 외지만 있다면 여러 가지로 공부를 시도할 수 있지만 불과 8년전 내게는 참 힘든 화두중의 한가지였다. 당시 나는 남원 대법사 신도회장을 15년동안 맡아오며 나름대로 절박하게 노력하고 자부했었다. 일요일마다 법회에 나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절의 대소사일을 돌보며 그렇게 부처님 제자로 여법하게 살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뭔가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하고 고민을 하던 끝에 몸으로 부딪히며 단순하게 하는 불교신행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이론적으로 내 속에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암연합회의 스님들, 그리고 뜻이 맞는 재가불자 10명이 모여 92년 남원불교대학을 열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시작된 남원불교대학은 처음에는 2~3개월의 단기 기초강좌부터 시작해 지금은 1년 코스의 불교대학으로 발전했다. 지금까지 남원불교대학을 거처간 불자들이 1500명이 넘는다. 도법스님은 현재 남원불교대학의 학장으로 우리 불자들을 일깨워 주고 계신다. 나는 내 개인 사업도 하면서 남원불교대학의 일도 함께 돌보고 있다. 내 수행생활의 터전은 남원불교대학이다. 그곳에서 나와같은 불자들이 불교를 배우고, 토론하고, 함께 수행할 목적을 찾게 된다. 그런 이들이 모여 올 봄에는 20명으로 구성된 남원불교대학 거사회도 만들었다. 매일 인근 사찰을 찾아 불교문화재도 답사하고, 법회도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의 일상생활과 수행의 문제점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불법의 정수 바르게 알자"

남원불교대학 신행의 터전...자녀포교 힘들어



그래서 찾은 곳이 당시 전주의 화엄불교대학이었다. 1년과 2년의 화엄불교대학을 다니며 불교에 대한 기본분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특히 이기영법사님의 법성계 강의는 당시 내가 녹음을 해놓고 또 듣고 또 듣고 복습할 정도로 명쾌했다.

개인적인 수행도 항상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나는 매일 매일 신도장구 대다라니를 5번씩 독송한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힘든 일이 남아 있다. 지식들을 보다

그리고 율타스님이 강의한 부처님 일대기 또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명강의중의 하나로 내 기억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신심나게 1년을 마치고, 나는 다시 전문과정에 도전해 대승기신론을 배웠다. 매주 수요일마다 화엄불교대학에 들려 기신론 강의를 들을때면 내가 살아 있다는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2년간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사는 남원에도 불교대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적극적인 불자로 키워내는 일이다. 그게 바로 우리불자들의 가장 기본이자 최고의 포교일전대 현대사회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그들에게 불교를 이야기 하기란 내게는 아직 부족하고 힘든 점이 많다. 아마도 나의 수행이 더욱 깊어지고, 그 세대들에게 맞는 실득력있는 불교포교사로 나 자신이 변모되었을 그때에 아이들도 자랑스런 불자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절히 바라면 다 이뤄진다 했던가 남원지역에서 불교를 결 미망한 도량을 구상하시던 당시 화엄불교대학 부학장 도법스님과 선운사 실상사 지역

불교는 신해행정의 종교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가르침을 항상 실천해야 한다. 나는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고, 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 경험에 비추어 가까운 불교대학을 찾아 보다 적극적으로 공부할 것을 권하고 싶다.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시시오!

Advertisement for '極樂往生服' (Gyokuraku Oshirogi) featuring images of white robes and promotional text. Includes btn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ultural projects.